

탄허 스님 선양사업 본격 시작

기념박물관 26일 개관... 한학전문연구소도 개원

탄허 대종사 기념박물관이 11월 26일 문을 연다. 탄허 대종사 기념박물관은 한국의 고승이자 불교 학자인 탄허 스님의 뜻을 널리 펴기 위한 공간이다.

탄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22세에 평창 상원사에서 출가했으며 1983년 타계했다. 스님은 역경에 있어 첫 손에 꼽힌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불경의 한글 번역에 앞장섰다. 스님은 유·불·선 삼교(三敎)에도 통달한 한국 불교의 대학자로 꼽힌다.

박물관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자곡동 그린벨트 내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적사각형 모양의 외관에 전통 사찰의 느낌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건평 450평에 4층 건물로 된 탄허박물관은 건물 외벽에 금강경을 실크로 한자씩 새겼다. 또 건물 2층에 위치한 법당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 지어졌다. 탄허 스님 범명 가운데 '虛'자를 표현한 것이다. 기념관 입구에는 108개의 기둥으로 번뇌를 버리라는 의미를 담았다.

안에는 탄허 스님이 출간한 15종 74권의 저서와 140점의 서예, 비명 탁본, 사진, 유물 등과 함께 스님이 소장했던 고서 4000여 권이 전시된다. 탄허 스님의 유지대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박물관 외에도 법당, 교육관, 강사실, 강의실도 마련했다.

기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사상적으로 직접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거 스님이 박물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설계자에게 주문한 것은 전통사찰의 현대적 해석이다. 탄허박물관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설계한 건축가 이성관 씨가 설계했다. 탄허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고 최근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해거 스님은 50년 전 탄허 스님과 그 제자들이 약속했던 '10년 결사도량'을 설명했다. 스님은 "1958년부터 61년까지 영은사를 3년 결사도량으로 삼고 탄허 스님이 화엄



11월 26일 서울 개포동에 개관하는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 내부 모습. 탄허기념관은 전통 사찰의 현대적 해석으로 최근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 건축대상을 수상했다.

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후일 다시 모여 10년 결사를 맺자고 약속했다. 결국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박물관 뒤에 결사도량으로 금강선원을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탄허박물관 내에 '한학전

문연구소'도 개원할 계획이다. 스님은 "유교에는 지곡서당 같이 좋은 한문교육기관이 있어 그곳의 출신들이 한문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불교계에도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스승의 뜻을 잇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로 출가한 뒤 탄허 스님 수하에서 직접 경전을 배웠고,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도 함께 했다. 현재는 강남 금강선원 원장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화운동 기념사업회 발기인 발족

24일 정화운동 50주년 기념세미나

왜색불교 퇴치를 주창하며 시작된 제2차 전국승려대회 발발 50주년을 맞아 불교정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조계종 스님들이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스님,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성운 스님(삼전사 주지), 일면 스님(前 군승교구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등 (가칭)불교정화운동 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발기인 일동은 △불교정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기념사업회 설립 △불교정화 기념회관

복원 △불교정화기념일 제정 및 매년 정선운동 전개 등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연구원(이사장 법산)은 승려대회 발발 50주년을 기념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대회에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1960년 승려대회의 참여주체 연구'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근대조계종 성립의 성격'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오늘' 등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사격장 참변 일본인 천도재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 108정골 친견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자리한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주지 청봉)는 11월 7일 세계 하나뿐인 무가보의 성물 천령정골과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기증받은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성골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천령정골은 열반한 라마승의 대비 전 이마에서 미간의 뼈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108개의 염주알이 되기까지는 2000년이 넘게 걸렸다고 전해진다.

청봉 스님은 "천령정골염주는 108명의 라마승들이 대를 이으며 열반하기 전까지 한가지씩 염을 세우고 수행정진해 만들어진 것이다. 108대원이 스며있는 세계의 단 하

나뿐인 무가보(無價寶)의 성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일에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일본인 10명의 천도재가 불광사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일본 영사관 고토, 유족 및 친지 일본 취재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봉 스님은 "타국에서 변을 당한 구원을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불광사는 부처님 진신성골사리 및 천령정골 친견을 6개월 여 동안 불자들의 친견을 위해 공개한다. (055)364-4747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조동종 제14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1월 10-12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13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원장 덕주 스님, 부종정 덕룡 스님, 교육원장 광혜 스님 및 원로대덕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지명 스님은 "부처님 교법을 잘 받아서 응당히 힘써 복된 일과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며 수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새로운 포교와 목초선에 의한 중생제도를 통해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의 이상인 정토구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100자 뉴스

포교원 광주호남 어린이지도자 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과 사단법인 동련 광주전남지구(회장 도제)는 지역별 연수교육으로 11월 13일 원각사에서 '조계종 전·남북 교구 및 광주·호남지역 불교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에는 60명의 어린이 지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현숙 교수(대한불교교사대학)의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최미선(동연사무국장)씨의 '불교미디어교육자료의 활용과 실제' 장초희 팀장(어린이법회 교육지원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놀이 명상' 김동욱 강사(동연 찬불가운동팀)의 '신나는 찬불가 율동'이 진행됐다.

도제 스님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희망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다"라며, "어린이불교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울구치소 무사고 기원 영산재 봉행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최숙희)는 11월 12일 수용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를 봉행했다. 영산재는 서울구치소 내 무사고 기원과 수용자들과 인연있는 영가 및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혼(孤魂) 1800여명의 해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0년 만에 개최된 행사는 성불사 주지 해산 스님이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사단 조철주 법사 등이 함께 했다. 이상연 기자

불교전문서점 희귀불서 초판본 전시

조계종 불교전문서점과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11월 22일~12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민족사 윤창화 대표의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출간과 불교전문서점 1주년을 맞아 준비됐다.

행사는 용성 스님의 <귀원정종>(1913년 판)과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1913년 판), 이능와 스님의 <조선불교통사>(1918년 판) 등 1913~1991년 출간된 희귀불서 29종이 전시된다. 전시 도서들은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10여 년간 전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한편, 불교전문서점은 전시 기간 동안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에 소개된 불서 30여 권을 할인 판매한다. 전시시간은 오전 8시~오후 10시. (02)2031-2073 조동섭 기자

대구 반야선원 희망나눔 성품 기탁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선원장 효종) 신도회는 11월 17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저축하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불우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성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선원장 효종 스님은 불우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구정장에게 기탁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대구 법장사 적묵당 현판식

대구 법장사(주지 도건)는 11월 14일 대웅전 관세음보살상·지장보살상 점안식과 요사채 적묵당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임병현 대구 남구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축사에서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을 계기로 마음 속 청정심을 되찾는 수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놓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최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봄, 여름, 동지)로
 나누어 저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심용신안특별허가기술
 ■법륜대: 순금천불보탑법륜대
 ■대: 청·대·대한민국 상감청자
 ■높: 01-110cm
 ■원뿔폭: 45cm
 ■발판폭: 30cm
 ■무: 25kg